

박찬욱 감독 형제 뉴미디어 전시 광주산 ‘수궁가’ 지역 콘텐츠 강화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2018년 사업을 발표했다. 올해는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제작 작업을 강화하고 특히 지역문화예술계와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레지던시와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대폭 강화했다.

◇흥미로운 공연·전시

전시 분야에서는 오는 3월 8일 개막하는 ‘파킹찬스 프로젝트’ (Parking CHANce)가 눈에 띈다. 영화감독 박찬욱·박찬경 형제의 콜라보레이션 전시로 대형 뉴미디어를 활용한 색다른 전시다.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 등을 연출한 박찬욱 감독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는 한국의 대표 감독이다. 동생 박찬경은 영화감독이자 설치미술가로 영화 ‘신도안’, ‘그날’ 등을 만들었다.

역시 3월에 오픈하는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 (From Vietnam to Berlin)는 역사, 사회, 정치적 사건에 작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20여점의 회화 작품으로 보여주는 전시다.

그밖에 하반기에는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전’이 열릴 예정이며 지난해 황영성 작가를 초청했던 지역작가 초대전은 올해에도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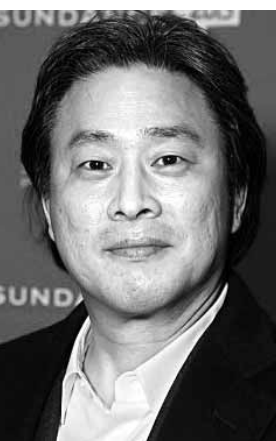
공연 분야에서는 대중성과 작품성 높은 국내외의 우수공연을 초청, 일반관객과 전문인의 관심을 높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새로운 작품도 제작한다.

초청 공연으로는 인형극 ‘레미제라블’, 오페라 ‘포기와 베스’ 등이 관객을 만나며 한국, 중국, 일본 연극인들의 축제인 ‘제25회 베세토 연극제’가 열릴 예정이다.

ACC는 특히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진행하는 미디어 애니메이션 음악극 ‘수궁가’를 제작, 세계 시장에 내놓는다. 광주 전남의 대표 문화자산인 남도 수목화와 판소리를 기본으로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도시인 광주의 예술 역량을 활용한 작품이다. 진흥원이 수목화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연출로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 예술감독을 맡은 양정웅이 참여한다.

또 가변형 예술극장 1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올해 문화전당 어떤 사업 펼쳐나
국내외 작가 초청 전시 다양성 확보
레지던시 확대·전문인력 400명 양성
2020년 공연 ‘광주스토리’ 대본 공모



박찬욱(왼쪽)·찬경 감독 형제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최적화 공연 개발 사업은 지난해 연극 ‘소’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작품을 발굴할 예정이다.

전당의 인기 프로그램인 ACC 브런치 콘서트는 기존에 진행돼왔던 형식대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11시 토

크와 음악이 있는 시간을 선보인다.

◇지역협력 사업 확대

지난해 광주시립극단, 시립발레단, 시립교향악단 등과 공동 제작을 진행했던 ACC는 올해 광주를 배경으로 한 작품 ‘광주 스토리’(가칭) 제작을 시작한다. 2020년 최종 완성작 공연을 목표로 하는 기획으로 올해는 대본 공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대표작 북극제 ‘하우판’과 아트 트레일러 등을 지역 예술가, 단체와 협력해 진행하며 시민예술프로젝트로 시민 오케스트라도 지속 운영한다. 그밖에 지역 예술대학의 우수 프로그램도 초청해 선보인다.

아시아문화연구소는 ‘아시아의 쉼터’, ‘아시아의 디자인 연구’를 지역 대학 연구소와 협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전시, 아시아문화포럼 등도 지역 단체와 연계해 개최한다.

◇레지던시·전문 인력 양성 확대

국내외 작가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창작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220여명을 선발하며 참가자들이 생산해낸 결과물은 퍼포먼스, 설치, 쇼케이스 등 다양한 형태로 관객들과 만난다.

국내 아티스트 5팀, 국외 아티스트 5팀을 초청하는 공연 레지던시(ACC R Theater)는 ACC 프로젝트 개발 라인의 다변화와 지역 젊은 예술가들의 참여 기회 마련을 위해 계획됐다. 또 아시아 문화예술 방문연구, 창작자 융복합 콘텐츠 랩, 미디어아트, 아시아커뮤니티 레지던시, 문화페스티벌 연계 레지던시, 네덜란드 라익스 아카데미와 공동운영하는 해외 협력 레지던시 등을 운영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는 전시테크니션, 음향디자인 등 8개 분야에서 400여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지역 대학 추천 우수 인력을 선발, 해외 인턴 활동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민아카데미, 인문강좌 목요일의 문화시계 등 ACC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참여형 교육 프로그램도 공모할 계획이다.

한편, ACC에 따르면 대중화 콘텐츠는 2015년 24건, 2016년 33건, 2017년 37건으로 늘었으며 지역친화·참여 콘텐츠 역시 2015년 17건, 2016년 31건, 2017년 37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은기자 mekim@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장롱 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ACC 시민오케스트라 공연모습.

〈문화전당 제공〉



박준현의 문화카레

미국의 부호 존 록펠러(1839~1937)의 재산에는 생전 ‘더러운 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녔다. 법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초창기 미국 석유 시장의 대부분을 독점하면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런 불명예가 부담스러웠을까. 지난 1903년 록펠러는 ‘강도귀족’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자선사업에 눈을 돌렸다.

하지만 록펠러의 재단 설립은 순탄치 않았다. 그의 ‘변신’을 믿지 못한 미 연방의회가 간간하게 따지는 바람에 인가받는 데에만 3년이 걸렸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가 얻

높았다. 수천 평의 대저택에서 살면서도 전화요금 줄이기 위해 거실 한쪽에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손님들에게 동전을 교환해줄 정도였다.

최근 개봉된 영화 ‘올 더 머니’(All of the money in the world·리들리 스콧 감독)에는 돈에 집착해 혈육도 외면하는 그의 비정함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1973년 자신의 16살 손자를 유괴한 인질범들과의 협상과정에서 그는 며느리의 간곡한 호소에도 몸값 1700만 달러(약 186억 원)를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러면서 “내가 인질범에게 돈

멋진 부자로 사는 법

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다”고 말한 일화는 록펠러가 문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록펠러가문의 자선사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존 록펠러의 부인 에비 록펠러였다. 평소 미술품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칼레타인 메리 쿤, 릴리 블리스와 함께 1929년 맨해튼 한복판에 뉴욕현대미술관을 설립했다. 록펠러 여사가 내놓은 기금으로 미술관은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 마티스의 ‘춤’ 등 수많은 걸작을 구입해 미국인들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오일 머니’로 부를 일군 또 다른 기업인은 J. 폴 게티(1892~1976)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유전과 미술품을 사들인 그는 미국인 최초로 10억 달러의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이다. 196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칼에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구두쇠로 악명이

을 보내면 다른 손자들도 위험하다. 부자가 되는 건 쉽지만 부자로 사는 건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손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1점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네덜란드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 등의 작품은 주저없이 구입했다. 그의 ‘나몰라라’ 전략에 협상상이 4분의 1(400만 달러)로 줄면서 손자는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게티는 몸값에 대한 세금감면까지 따지는 등 악덕기업가의 민낯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럼에도, 오늘날 미국에서 게티는 추악한 기업인으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LA의 산타모니카 산 정상에 들어선 세계적인 미술관 복합단지, ‘게티 센터’(The Getty Center) 때문이다. 평생 상상을 초월하는 수천노로 유명했지만 수 십 년간 모은 방대한 수집품과 자선재단을 통해 미국인들의 문화적 허기를 채워주고 있어서다. 그리고 보면 기업인들의 메세나야 말로 멋진 부자로 사는 게 아닐까.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내달 9일까지 공모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정부는 관광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 관광지를 매년 확대해 오는 22년까지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면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정비 등이 지원된다.

사업 공모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 누구나 관광지 또는 관광사업장 명칭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자는 3월9일까지 공문,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요강과 공모 신청 방식은 한국관광공사 누리집(kto.visitkorea.or.kr)의 알림/공고·공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속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하는 속옷입니다.

아모리이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대표전화 1588-2219